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윤 성 민

신 희 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 소재 남녀 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과민성 자기애 척도, 수용 행동 질문지,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경험회피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경험회피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의 관계를 밝히고, 내현적 자기애 경향성이 경험회피를 통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불안을 호소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자기애, 경험회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매개효과

[†] 교신저자 :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Tel : 031)219-2747, Email : hcschin@ajou.ac.kr

현대 정신분석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Kernberg(1975)는 자기애자들이 겉으로는 적응적인 행동을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적인 세계는 병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들은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겉으로는 사회에 적절하게 적응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적으로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뿌리 깊은 왜곡이 있으며, 야심이 강하고, 열등감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웅대한 내용의 공상을 잘 하며,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지루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지혜와 권력, 부와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가진다. 또한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능력 등이 부족하고, 만성적으로 강한 질투심을 느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평가절하하거나 자신이 전능하다는 착각을 하거나 혹은 ‘자기애적 철수(narcissistic withdrawal)’를 보이기도 한다. Kernberg는 자기애가 부적절감과 우울,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기에 대한 과대 환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부모가 차갑고 거부적일 경우, 아이는 자기에게서 부모가 좋아하는 요소만을 찾아내어 거대한 자기를 발전시키는 한편, 스스로는 내면으로 철수하여 자신만을 사랑하게 된다고 보았다.

Kohut(1971; 1977) 역시, ‘웅대성(grandiosity)’과 ‘취약한 자존감’을 자기애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보면서 양육자가 아이에게 적절하게 공감을 표현해주거나 이상화의 대상이 되어주는 데 실패했을 때, 취약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병리적인 자기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Kohut에 의하면, 병리적인 자기애자들은 자기 가치감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웅대한 모습과 과장된 자기 존중을 보이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주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많은 이론가들과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자기애가 거대자기 환상이나 특권의식과 같은 ‘병리적인 웅대성(pathological grandiosity)’과 ‘취약한 자존감(vulnerable self-esteem)’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특성들을 이면에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양식에 따라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한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1998; Hendin & Cheek, 1997; Kohut, 1971, 197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a). 이 두 유형 모두 기저에는 특권의식과 착취하는 경향으로 드러나는 병리적 웅대성과 취약한 자존감을 공유하지만, 외현적 자기애는 지배에 대한 욕구, 친화적 관심의 부족, 자기의존, 타인에 대한 의심 등이 특징인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무가치감, 과민성, 비판에 대한 민감성, 부정적 정서,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관심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Hendin & Cheek, 1997).

Cooper(1998)는 두 가지 자기애 유형이 공통된 역동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손상된 자기표상을 복구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Cooper(1998)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경탄을 요구하고 웅대성을 과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비난의 단서가 없는지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확언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보호한다(권은미, 2006에서 재인용).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자기표상을 복구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적응 및 병리의 양상 또한 다르다. 1980년대 이후 최근의 연구들은 병리의 정도에 있어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Gabbard, 1989; 1998; Gersten, 1991; Hendin & Cheek, 1997; Kohut, 1977; Masterson, 1993;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b).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는 달리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Raskin과 Novacek(1989)은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경험-추구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리더십을 갖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한혜림, 2003). 이에 비해, 내현적 자기애는 안녕감 및 개인적 적응에서의 결손(Wink, 1991a), 우울 및 낮은 자존감(Watson, Taylor, & Morris, 1987), 성인기 애착 불안(Smolewska & Dion, 2005), 그리고 혼란된 대상관계 및 피학성(Hibbard, 1992)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적 회피 및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며(권은미, 2006; 한혜림, 2003), 수치심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이인숙, 2005; 한혜림, 2003) 보고되었다. 이처럼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내현적 자기애가 지니는 다양한 병리적 양상으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 자기애에 관한 연구 관심도 주로 내현적 자기애를 이해하는데 쏠

리게 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대인관계에서 많은 불안과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지지한다(Dickinson & Pincus, 2003; Fraley & Shaver, 2000; Hendin & Cheek, 1997; Schurman, 2000; Smolewska & Dion, 2005; 권은미, 2006; 이인숙, 2002; 한혜림, 2003). 특히, 자기애자들이 보이는 여러 부적응적 측면들 가운데 회피적이고 비판에 과민하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Hendin과 Cheek(1997)은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Dickinson과 Pincus(2003)는 취약한 자기애가 대인관계에서의 불안과 회피하는 경향으로 특징지어지는 회피적 성격장애와 관련 있음을 밝혔다. 또한 Smolewska와 Dion(2005)은 내현적 자기애에 있어서의 개인의 점수는 성인기 애착에 있어서의 개인차, 특히 불안 애착을 가늠하는데 예언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애인과의 관계를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혔다. Schurman(2000)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불안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다(한혜림, 2003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험적 결과들은 내현적 자기애가 가지는 다음과 같은 역동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타인의 평가 및 반응에 대해 과민하고 쉽게 상처를 입는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보기에는 수줍음을 많이 타고 조심성이 많고 공감을 잘하는 듯 보이므로 언뜻 보기에는 자기애로 보이지 않는다(권석만, 한수정, 2000). 하지만, 이들의 거대 자기 환상은 겉으로 표출되지 않을 뿐, 그 내

면에는 웅대한 자기상이 억압되어 있으며, 이러한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비밀스러운 소망을 지니는 모순적인 성격 유형이다(권은미, 2006).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며, 억제적이고 수줍어하며 자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며,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더 기울이고, 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하며, 경멸이나 비판의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쉽게 감정에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끼게 된다(정남운, 2001; 한혜림,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평가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높은 불안을 경험할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보이는 여러 부적응적 양상들 가운데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회불안이라는 증상의 근원에 있는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를 다루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는 단일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성격구조이기 때문에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단기간의 개입만으로는 다루기 어렵다(권은미, 2006). 따라서 치료적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병리적 현상을 유발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정승아, 오경자, 2005).

그렇다면, 내현적 자기애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즉,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제는 무엇인가?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임상적으로 보다 많은 부적응적인 측면을 드러내며, 대인관계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주관적 불편감을 호소한다는 면에서 볼 때(Wink, 1991b), 무엇이 내현적 자기애를 그와 같은 부적응이나 사회적 불편감으로 이끄는지 그 매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이나 심리치료 장면을 찾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내담자들을 도울 때 상담 개입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내현적 자기애와 적응/부적응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 내현적 자기애와 부적응을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한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무엇이 내현적 자기애와 부적응을 매개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은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매개할 것으로 추론되는 여러 변인들 중에서, 특히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경험회피란 ‘원치 않는 사적 경험들(신체적 감각, 정서, 사고, 기억, 또는 행동적 경향성 등)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인 평가 및 이것들에 기꺼이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따라서 이것들을 통제하거나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고의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 과정’(Hayes, 1994; Hayes, Strosahl, & Wilson, 1999)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경험회피’를 설정한 이유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보이는 회피성향에 근거한 것이다(Dickinson et al.,

2003).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어떠한 가능한 비판과 비난도 차단하고 미연에 원천봉쇄하기 위해 비난의 단서가 없는지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살피고, 확언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려는 회피적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자기보호의 일환으로 경험회피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그들이 가지는 취약한 자존감과 병리적 웅대성으로 인해 타인의 평가 및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자신에 대해 부족감, 부적절감, 자신이 우스꽝스럽다는 느낌인 수치심, 무가치감 등의 취약한 감정 및 사고에 과도하게 융합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이러한 불쾌한 느낌 및 사고들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고통스럽고 취약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웅대성 욕구는 사회적으로 원하는 인상을 보이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능할 지도 모를 비판과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의 의견이나 시선에 주의 깊게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등의 회피전략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증상들(예: 심장이 두근거림, 막연한 두려움, 사회적 실수를 저지를까봐 두려움 등)을 상대방이 알면 자신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혹여 자신이 의도한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신이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 자신에 대한 취약한 감정 및 사고를 경험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증상들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자기-초점적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불안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란 인지치료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인 수용-전념 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 Hayes, Wilson, Gifford, Follette과 Strosahl(1996) 등에 의하면, 원치 않는 사적 경험(우울, 불안, 심장이 두근거림, 떨림, 당황감 등)은 비록 그것이 원치 않는 경험이거나 부정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해롭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적 경험들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또는 이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적인 통제 노력을 기울일수록 그 피하고 싶은 경험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Hayes 등(1996)은 경험회피가 병리적 패턴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경험회피를 하는 과정에서 실재와 접촉하지 못하므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의 습득이 어려워져서 새롭고 창의적이며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습득할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고통을 심화시키는 부적응적인 악순환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Kashdan, Barrios, Forsyth와 Steger(2006)는 사회불안 장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불안관련 장애들을 대상으로 실험적 연구를 실시한 후, 경험회피가 심리적 괴로움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데 핵심기제임을 증명하였고, 불안관련 장애 및 일반적인 인간의 고통들에 있어서 경험회피가 ‘일반화된 심리적 취약성(generalized psychological vulnerability)’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경험회피의 역설은 불쾌한 생각들, 감정들, 신체적 감각들을 숨기거나 억제하려고 시도할수록 그 동일한 경험들의 빈도와 고통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증가하며, 자기 자신이 비진실해지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이 커진다는 것이다(Hayes & Strosahl, 2004).

내현적 자기에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동기화되는데(Cooper, 1998), 이러한 경험회피는 구조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과정(Hayes, 1994)을 의미하므로 과정 변인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즉, 경험회피는 상황 특정한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그 기능상 외부요인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가설대로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내현적 자기애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치료적 개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 H대학교, A대학교, 및 I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2007년 5월과 6월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척도들의 제시순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함된 척도들을 무선으로 섞어 제시하였다. 심리학 관련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 응답 방식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무선배포한 후 작성하도록 해서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이중 무작위로 응답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7부를 제외한 313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313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174명(55.6%), 여학생은 139명(44.4%)이었으며, 대학 1학년이 58명(18.5%), 2학년이

106명(33.9%), 3학년이 60명(19.2%), 4학년이 87명(27.8%), 대졸이 2명(.6%)이었다.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9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21.63이었다.

측정도구

과민성 자기애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도구로 Hendin과 Check(1997)이 구성한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Murray(1938)가 개발한 자기애 검사(Murray's Narcissism Scale)에 기초하고 있다. Murray의 자기애 검사는 20 문항으로 되어있는데, Hendin과 Check(1997)은 20문항으로 된 Murray의 자기애 검사에서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MMPI관련 자기애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인 문항 10개를 뽑아서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 상에 표시하며(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전적으로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많이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남운의 연구에서는 원래의 10개 문항에서 문항 총점 상관이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하여 평가예민성과 자기몰입의 2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Hendin과 Check(1997)의 연구에서는 집단에 따라 Cronbach's α 로 .72, .75, .62의 신뢰도를 보고하였으며, 정남운의 연구에서는 집단에 따라 .69와 .7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수용 행동 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AAQ-16)

‘경험회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수용 행동 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AAQ-16)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ACT이론에 기초하여 Hayes 등(2004)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9문항형과 16문항형이 있는데, 치료적 과정이나 변화 연구의 과정에 사용할 경우, 좀 더 민감한 16문항 척도를 사용하도록 제안된 바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문항수가 많은 16문항 척도를 문현미(200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AAQ-16은 7점(1-7점) 척도로서 총 점수 범위는 16-11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수용의 정도가 높음을 즉, 경험회피가 낮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수용의 점수가 낮음을 즉, 경험회피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Hayes, Strosahl과 Wilson (1999)은 내적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기꺼이 경험하기’ 요인과 원치 않는 내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행동 요인’의 두 요인을 제안하였다. 문현미(2006)의 연구에서 확증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을 두 가지 요소로 개념화한 Hayes 등(1999)의 제안과 일치하게, 2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Bond와 Bunce (2003)의 연구에서 두 시점에서 측정한 이 척도의 alpha 계수는 각각 .79 와 .72 였고, 문현미의 연구에서 AAQ-16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2로 보고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 = .72이었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

구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는 타인과의 대화와 같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로 Mattick와 Clarke(1998)이 개발하였으며 모두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러하다)에 이르는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문항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기술하는 자기 진술문 형식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김향숙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는 .88~.94로,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로, 1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마찬가지로 .92로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 = .92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 통계량을 분석하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영향력 검증과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obel검증(1982)과 Aroian검증(1944; 1947)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표 1은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표기한 것이다. 과민성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표 1. 과민성자기애, 경험회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사이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M	SD
1. 과민성자기애(내현적자기애)		.879**	.719**	-.285**	.459**	22.33	5.512
2. 평가예민성			.356**	-.337**	.442**	13.93	3.628
3. 자기몰입				-.158**	.337**	5.76	2.317
4. 수용(경험회피)					-.359**	64.12	11.121
5.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22.25	12.542

* $p < .05$, ** $p < .01$

의 관계에서 과민성 자기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 = .459, p < 0.01$), 과민성 자기애의 하위변인인 평가 예민성 및 자기몰입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민성 자기애 전체 및 과민성 자기애의 두 하위변인 각각과 수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세 관계 모두에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r = -.158 \sim -.337, p < 0.01$). 수용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359, p < 0.01$).

과민성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데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세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다 줄어들어야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부분매개효과, partial mediating), 세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경험회피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2에 나와 있다.

표 2를 통하여 과민성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보면, 먼저, 수용(경험회피)을 종속변수로

표 2. 과민성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R2	F	$\beta(B)$
1단계 과민성자기애→수용(경험회피)	.081	27.451***	-.285(-.575)***
2단계 과민성자기애→사회적상호작용불안	.211	82.127***	.459(1.043)***
3단계 과민성자기애→사회적상호작용불안	.266	55.148***	.386(.875)***
수용(경험회피)→사회적상호작용불안			-.248(-.278)***

*** $p < .001$

한 회귀분석에서 과민성 자기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beta = -.285, p < 0.001$)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과민성 자기애는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beta = .459, p < 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개변수인 수용(경험회피)을 추가하여 과민성 자기애와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수용(경험회피)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beta = -.248, p < 0.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이때 과민성 자기애도 유의한 영향력($\beta = .386, p < 0.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더 컸으므로($\beta = .459 > \beta = .386$) 이러한 조건들로 미루어 볼 때 과민성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경험회피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Kenny 등(1998)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서 Sobel(1982)검증과 Aroian(1944; 1947)검증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직접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는 베타계수의 감소($\beta = .459 \rightarrow \beta = .386$)가 유의미함(Sobel's T: $Z = 3.566, n = 308, p < 0.001$, Aroian's T: $Z = 3.532, n = 308, p < 0.001$)을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극단적인 예민함, 비효율적인 정서조절, 열등한

느낌 등의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애와 경험회피,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현적 자기애 전체 및 내현적 자기애의 두 하위요인인 평가 예민성과 자기몰입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용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먼저,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 전체 및 두 하위요인들이 수용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경험회피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회피적인 대인관계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의 만성적 과민성은 자신들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사회적으로 철수하고 회피하도록 만든다고 한 연구결과들(정남운, 2001; Cooper, 1998; Gabbard, 1989; 1998; Gersten, 1991; Kraus & Reynolds, 2001; Wink, 1991b) 및 경험회피와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및 대인관계 어려움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들(Butler & Gross, 2004; Gross & Levenson, 1993; 1997; Richards & Gross, 2000), 그리고 경험회피가 불안관련 병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Feldner, Zvolensky, Eifert, & Spira, 2003; Karekla, Forsyth, & Kelly, 2004; Spira, Zvolensky, Eifert, & Feldner, 2004)과도 일치한다. 또한, 경험회피가 일반화된 심리적 취약요인으로서 불안관련 장애, 만족스럽고 의미있는 삶의 요소

들의 붕괴 및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적 고통을 매개한다고 밝힌바 있는 Kashdan 등(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은 내현적 자기애의 민감성과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남운(2001)이 지적하였듯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축되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하며, 경멸이나 비판의 증거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끼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특징을 반영한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높은 경험회피를 보이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웅대성 욕구 때문에 타인들로부터 어떠한 비판도 받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사회적으로 원하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들은 가능할 지도 모를 비판과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의 의견이나 시선에 주의 깊게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증상들(예: 심장이 두근거림, 막연한 두려움, 사회적 실수를 저지를까봐 두려움 등)을 기꺼이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것들을 상대방이 알면 자신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혹여 자신이 의도한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신이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 자신에 대한 취약한 감정 및 사고를 경험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증상들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자기-초점적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등의 회피전략들을 사용하는 것도 경험회피와 관련이 있다.

경험회피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

용 불안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험회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회피전략들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초점적 주의와 타인의 평가에 경계를 기울이게 되므로 불안은 가속화될 수 있다. 원치 않는 불편한 또는 불쾌한 상태에 대해 단기적 통제를 행사해 줄 다양한 정서적/행동적 회피 전략들(극도의 예민함, 주의 기울이기, 상황적 회피, 체크하기 등)을 시작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불안이 감소하는 것 같지만, 사소한 실수나 상대방으로 부터의 모호한 일말의 비난의 단서에도 예민해져 더 큰 불안이 되돌아오는 불안 ‘반향 효과(rebound effect)’를 가져온다. 이는 수용-전념치료에서 다양한 불안관련 장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Hayes & Strosahl, 2004).

수용-전념 치료 모델에서는 여러 형태의 정신병리를 ‘경험 회피’라는 건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 ‘심리적 수용’이 저해될 때 생기는 결과로 본다(Hayes et al., 1996). ‘심리적 수용’이란 방어 없이 사적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내포한다(Haas, 1994). 즉, 상황과 사건 및 그 결과로 생기는 반응을 있는 그대로 소유하고 허용하는 것이며,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적 경험에 대해 통제 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단순히 경험하고 알아차리는 것, 즉 사적 경험에 대해 피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문현미, 2006). 수용-전념 치료 모델에서는 이 같은 심리적 수용을 통하여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는다(Hayes, et al., 1999).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경험회피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이어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동시에 '친밀감'형성을 발달 과업으로 하는 성인전기로 들어가는 발달 단계(Erickson, 1982)에 있는 20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어떠한 형태로 발달하는지 살펴보았다. 대학교 상담 현장에서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이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 그 이면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서 오는 과도한 민감성과 취약한 자존감 및 자신이 원치 않는 사적 경험들을 피하려고 하는 경험회피로 인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및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 형성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그 치료적 개입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피하고 싶은 경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밝히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사적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밝히기 위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두 비 임상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일

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나 경험회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라는 개념들이 보다 병리적인 특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보다 타당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 집단을 통하여 더 분명한 자료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들을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모든 자료가 자기 보고 방식에 의해 얻어졌으며, 변인들의 특성상 민감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응답자들이 방어적인 태도로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자료가 편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객관적 자기 보고식 측정 외에, 종단적 연구나 투사적 검사, 개인적 면담 또는 실험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측정이 적용 된다면 더 정확하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경험회피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Hayes 등이 개발하고 문현미(2006)가 우리말로 번안한 수용 행동 질문지(AAQ-16)를 사용하였는데, 전체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2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고 보고한 문현미의 보고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별 α 가 높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수용 행동 질문지의 요인 구조가 불안정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척도에 대한 추가적 타당화 작업이 필요함이 사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매개변인으로 '경험회피'를 가정하였는데, 경험회피의 매개만으로 내

현적 자기에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그 외에도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추가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경험회피의 부분적인 매개효과였다는 점에서 볼 때, 경험회피 이외에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사이를 양적, 질적 차원에서 보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내현적 자기애를 근원으로 하는 사회불안 집단을 대상으로 기꺼이 경험하기를 촉진하는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증상이 유의미하게 경감되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회귀분석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고려되지 않고, 모델의 적합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대안으로 변인들 간의 방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겠다.

참고문헌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지나친 자기사랑의 함정. 학지사.
권은미 (2006).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김향숙 (2001). 사회적 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문현미 (2006).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수용-전념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4, 887-901.
한혜림 (2003). 자기애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Aroian, L. A. (1944/1947). The probability function of the product of two normally distributed variables.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18, 265-271.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nd, F. W., & Bunce, D. (2003). The role of acceptance and job control in mental health, job satisfaction, and wor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 1057-1067.
- Butler, E. A., & Gross, J. J. (2004). Hiding feelings in social contexts: Out of sight is not out of mind. In P. Philippot, & R. S. Feldman (Eds.), *The regulation of emotion* (pp. 101-126). Mahwah, NJ: Erlbaum.
- Cooper, A.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Ronningstam(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53-7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Dickinson, K. A., & Pincus, A.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 188-207.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Norton.
- Feintuch, B. (1998). *Adult attachment, narcissism, shame, and defensiveness*. Unpublished PhD,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Feldner, M. T., Zvolensky, M. J., Eifert, G. H., & Spira, A. P. (2003). Emotional avoidance: An experimental tes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response suppression during biological challeng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403-411.
- Fraley, R. C., & Shaver, P. R.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32-154.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3, 527-532.
- Gabbard, G. O. (1998).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in the treatment of narcissistic patients. In E. Ronningstam(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Gersten, S. P. (1991).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consists of two distinct subtypes. *Psychiatric Times*, 8, 25-26.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70-986.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Haas, J. R. (1994). The elusive nature of acceptance. In S. C. Hayes, N. S. Jacobson, V. M. Follette, & M. J. Dougher(Eds.),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y* (pp.33-36). Reno, NJ: Context Press.
- Hayes, S. C. (1994). Content, context, and the types of psychological acceptance. In S. C. Hayes, N. S. Jacobson, V. M. Follette, & M. J. Dougher (Eds.),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y* (pp. 13-32). Reno NV: Content Press.
- Hayes, S. C., Strosahl, K. (2004). *A practical guide*

- to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New York: Springer.
- Hayes, S. C., Strosahl, K., & Wilson, K. G. (1999).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r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S. C., Strosahl, K., Wilson, K. G., Bissett, R. T., Pistorello, J., Toarmino, D., Polusny, M. A., Dykstra, T. A., Batten, S. V., Bergan, J., Stewart, S. H., Zolensky, M. J., Eifert, G. H., Bond, F. W., Forsyth, J. P., Karekla, M., & Mccurry, S. M.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4*, 553-578.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1152-1168.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ibbard, S. (1992).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ions: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9*, 489-508.
- Kashdan, T. B., Barrios, V., Forsyth, J. P., & Steger, M. F. (2006). Experiential avoidance as a generalize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Comparisons with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44*, 1301-1320.
- Kenny, D. A., Kashy, D. A., & Bolger, N.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1*. (4th ed., pp. 233-265). New York: McGraw-Hill.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raus, G., & Reynolds, D. J. (2001). The "A-B-C's" of the cluster B's: Identifying, understanding, and treating 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 345-373.
- Masterson, J. F. (1993). *The emerging self: A developmental, self, and object relations approach to the treatment of the closet narcissistic disorder of the self*. New York: Brunner/Mazel.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 of Social Phobia and scrutin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skin, R. N.,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66-80.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ichards, J. M., & Gross, J. J. (2000). Emotional regulation and memory: The cognitive costs of keeping one's co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410-424.
- Schurman, C. L. (2000). *Social Phobia and covert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righ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 Smolewska, K., & Dion, K. (2005). Narcissism and adult attachment: A multivariate approach. *Self and Identity*, 4, 59-68.
- Sobel, M. E. (1982). Asymptoma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pira, A. P., Zvolensky, M. J., Eifer, G. H., & Feldner, M. T. (2004). Avoidance-oriented coping as a predictor of anxiety-based physical stress: A test using biological challeng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8, 309-323.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 335-350.
- Wink, P. (1991a). Self-and object related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9(4), 769-791.
- Wink, P. (1991b).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원 고 집 수 일 : 2007. 3. 27
수정원고접수일 : 2007. 7. 15
게 재 결 정 일 : 2007. 8. 2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Sungmin Yoon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of college students on their social interaction anxiety. We also explored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on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e participants included 320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e used 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16,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covert narcissism accounted for significant variance in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The results also suggested that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were partially mediated by experiential avoidan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and counseling practice.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social interaction anxiety, experiential avoidance, mediating effects